

제6대 총학생회 14일 공식출범

연합발대식, 야외음악당서 거행

16일까지 단대별로 각종 신입생 환영행사 가저

'90학년도 학생활동을 이끌어 나갈 총학생회(회장: 허중훈·경제4)를 비롯 각 학생자치기구가 14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다. 신입생환영제를 겸해 치뤄질 이번 행사는 학생자치기구의 출범을 알리고 신입생들의 입학에 축하하기 위한 취지로써 거행된다. 연합발대식 행사는 오후 1시 야외음악당에서 길놀이패의 한판 놀음과 노래경연은 시작으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총학생회장 인사말을 비롯 학생처장의 격려사,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제총협)측사, 운영위소개 및 본부기구 소개, 총학생회 상반기 투쟁방향 및 사업계획 발표, 교사들의 순으로 진행되고, 2부에서는 길놀이패 식후행사, 교내연전, 허수아비 화형식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발대식을 전후해 각 기구별 행사가 있게 되는데, 13일에는 총학생회 체육부주최 6중경기 「우리는 하나다」가 민주광장에서, 14일에는 로망스 주회 「신입생환영연주회」가 2중강당에서, 16일에는 총학생회 문화부주최 「신입생·재학생이 함께하는 민중가요경연대회」가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한편, 인문대학을 비롯한 8개 단대에서도 발대식과 함께 신입생 환영행사를 갖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학 13일부터 16일까지 6중경기가 치뤄지고, 시사내용을 주제로한 비디오쇼전이 있을 예정이며 15일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일일치점을 운영한다. ▲법정대학 신입생환영행사의 일환으로 12일부터 19일까지 비디오상영(평주민중항쟁 등) 및 도서관배가 있을 예정이며, 15일에는 한겨레만평 전시회 및 파벌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경상대학 15일 신입생환영회가 열리는날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민중가요경연대회 예선 및 구호합창 비디오상영, 놀이마당 등이 펼쳐진다. ▲사범대학 사범대학총회(회장: 김경호·과목4)주최로 지난 13일 2중강당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공식행사, 2부는 찬곡·노래곡·민중가요로 나뉘어

별 경연대회가, 3부에서는 졸업기·웃놀이·장작불놀이 등이 있었다. ▲농과대학 신입생환영행사는 오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체육대회를 겸해 열린다. ▲해양과학대학 14일 파벌 민중가요경연대회 예선을 치룬뒤 자체발대식을 갖고 연합발대식에 참가하며, 파벌로 다양한 신입생환영행사가 있게 된다. ▲자연과학대학 14일부터 16일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단행·만화 전시회가 열리며 예비대학 관련 사진전 및 파벌 신입생환영회가 있을 예정이다. ▲공과대학 13일 파벌 민중가요경연대회 예

선을 치렀으며, 15일과 16일 이틀간 의견수렴의 장인 「민의를 집」을 마련한다.

▲아간강좌부

14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하는데 신입생환영회는 오는 4월 1일 체육대회를 겸해 치를 예정이다.

「濟州島部落誌Ⅱ」발간

회원이 낸 기금으로

탐라문화연구소서

「濟州島部落誌Ⅱ」가 탐라문화연구소 회원 2백여명이 낸 기금으로 탐라문화 연구소(소장: 梁淳孝·교수)에 의해 발간됐다. 탐라문화총서 7번째로 발간된 이 책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재학생·교수·동문 등의 조사보고서를 묶은 것으로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광령리·과지리, 남제주군 인덕면 덕수리의 사회배경·방언·민요·설화·신앙·지명·속담·세시풍속·유적·유물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으며,李清奎(사학과)교수의 과지리 유적조사 보고서가 추가수록돼 있다.

“지역민중의 전체적 의견 무시”

총학생 6개 단체서 「탐동합의 무효」성명발표

지난달 17일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 대표(임문철신부 등 5명)와 범안건연·박희택 회장이 지난 3년간 계속돼온 탐동개발이익환수방법에 집중 합의한데 대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도내 6개 단체에서 「탐동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인사」를 자처하던 몇몇 사람이 지난 3년간 「탐동합의」를 맺고 해오던 지역민중들의 전체적 의견을 무시하고 독점자본과 밀착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도민들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제주지역 개발문제해결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중과 학생은 가열한 연대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탐동합의의 내용을 보면 「이미 합의된 범도민회 북개공사」외에 탐동개발지내 1천평 규모 대지의 금액(20억원 상당)을 장학기금으로 각출한다」는 것으로, 도당국은 도정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탐동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이 결정의안을 추진했다.

본교 육상팀 종합 2위

3·1절기념 마라톤대회서

부산일보사 주최

본교 육상팀이 3·1절 기념 「제22회 진주~부산간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부산일보사가 주최한 이번 대회 첫날인 3일 진주 중앙로터리를 출발, 마산 시청 앞까지 86.6km코스(8소구)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홍용수(체고·4), 김낙진(체고·4), 박상혁(체육·1) 학우가 7개 소구에서 2위를 차지해 4시간 40분 52초의 종합기록을 보였다.

한편, 본교 육상팀은 현재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0회 경호역전 경주대회」에 참가중이다.

유적발굴 보고서

「龍潭洞古墳」발간

본교 박물관

제주시 용담동 유적발굴 조사보고서 「龍潭洞古墳」이 지난해 12월 박물관(관장: 姜通源 교수·영문)에서 발간됐다. 지난 84년 제주시의 의뢰를 받아 본교 박물관이 용담동고분을 발굴한 내용을 중심으로 89년 확인조사작업을 거쳐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용담동 고분유적과 유물의 사진 및 그림설명 등이 실려있다.

한편, 용담동 고분유적은 고대 탐라국 형성에 어떠한 문화적 변동이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제주도 발굴조사 연구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경영자」입학식 거행

제1기생 52명 받아들여

「90.제1기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제1기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에서 김충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90학년도 경영대학원 제1기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이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 김충장총장과 金範國 경영대학원장을 비롯 20여명의 교수·관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자과정 강의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입학식에서 김충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갈 시기에 본교에 경영대학원이 신설되어 도내 기업인들을 학생으로 맞이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金範國 경영대학원장은 식사를 통해 「이번 공개강좌는 지역사회에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있고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있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최고경영자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기업체 간부, 도내 고급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의 간부, 지역 사업체 대표 등 52명인데,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후 수료증을 받게 된다.

「공개방송」개최

지난 7일 중강당서

「제7회 신입생을 위한 공개방송」이 교육방송국(실무국장: 이

창목·농학3)주최로 지난 7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방송연혁 안내를 시작으로 2부에서 종합구성 「20년여지 인생」을 비롯 보도기획 「JBBS 취재담」, DJ구성 「특별출연」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3부 어루어짐의 시간에서는 韓昌榮(행정학과)교수를 비롯 각 학생 자치기구장들이 출연, 「대학에 오면!」 「친구」란 주제로 대회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본사「同友會」회칙개정

회장에 李文敎씨 선출

「90본사동우회 임시총회」가 金澤玉 총장을 비롯 梁性厚 총동창회장 등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9일 와십문화빌딩 2층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金百洙회장 후임에 李文敎씨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하고, 동우회 회칙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본사 편집장 출신에게만 동우회원 자격이 주어졌던 것을 2년이상 본사에서 근무한 자에게도 주어지도록 개설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문교(MBC 보도국장) △부회장: 고유봉(본교 해양학과 교수), 김창진(오현고 교사) △감사: 양윤석(제주도 교육위원회 장학사), 허태현(한국일보 차장) △운영위원: 김백수(제주유니버시티 호텔 대표), 김한준(제주조각공원 운영부장), 김철수(제주도 교육위원회 장학사), 김동주(KBS 기자), 고영철(본사 편집국장) △간사: 고광욱(제주제일고 교사), 김진일(MBC 기자).

「동연」주요회칙 추가·개정

지난 8일 열린 대의원 총회서

「동아리 대의원총회」가 동아리 연합회(회장: 김범준·기관공4)주최로 지난 8일 오후 4시 4동 세미나실에서 대의원 1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90년도 동아리연합회집행부 및 본과장 인준」을 비롯, 「회칙개정 및 설명」 「9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인준」 등에 대해 토의되었고, 가결을 확보하여 대의원 전원가결로 및 신규 동아리 소개등이 기기사항으로 다뤄졌다.

이날 총회에서 추가·개정된 주요 회칙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사항: △분과 소집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상임위에서 인준된 분과는 회장이 소집권을 발동할 수 있고, 본과장의 권한을 임시 대행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 기구표 △유세는 총회 사업으로 하고 전체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등 3개항이다. ▲개정사항: △홍보부를 문화

홍보부라 칭한다.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 기구이다.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동아리대표자 20인 이상의 요구시 동아리연합회장이 소집하고, 그 시기는 상임위에서 정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집행부, 본과장, 전 동아리인들을 관리한다. △상임임원회의 제적인원 2/3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세는 총회 사업으로 하고, 전체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등 8개 항이다.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집행부, 본과장, 전 동아리인들을 관리한다. △상임임원회의 제적인원 2/3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세는 총회 사업으로 하고, 전체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등 8개 항이다.

출돌하르방

우리대학에도 뭔가 모를 새 학풍이 조성되고 있다

「갑갑한 서고에 후대쉬불빛이 비추지고 창문을 통해 한 학생이 들어와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 「아」 하는 낮은 비명소리와 함께 다형이라는 듯 한숨이 새어나오고 그 학생은 재빨리 무언가를 갖고 서고를 빠져나간다.」

이것은, 시험기간 15일전 부터 그 준비를 위해 열일시간이 지난 서고에 몰려 들어가 참고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대학이 줄 수 있는 남다른 의지 놓치지 않고 즐기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은 영화의 한 부분이다.

작년 우리 대학은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조차 공부하지 않고 휴강만 계속되는 학교라 인식돼 있었다. 또한 교수와 학생간의 불신은 극도로 팽배해져 사제간의

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겨울방학을 끝내고 새학기를 맞은 우리 학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리는 오프소리에 강의실 뒷방문만 잠깐 열어놓은 채 있는 분위기로 뒤바뀌고 있음을 조금씩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방학중 연구실을 계속지킨 교수님들에서, 도서관을 드나들던 학우들에서,求知欲을 채우기 위해 진지하게 몰아오는 후배들에서, 강의 첫날 받아본 강의계획서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제까지 본교는 태대학들과 인접성을 갖고 있지 않아 경쟁하러는 노력이 부족해 공부 분위기를 안다고 얘기해 왔다. 보는 게 없고 듣는 게 없어 늘 그 자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불리한 지리적 여건, 부족한 도서관에 의해 연구하지 못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수·학생 모두가 스스로 학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학우들은 이제 떼에서 떨어지는 고물만 받아 먹으려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교수들도 강의준비를 하지 않고 한시간 강의를 앞뒤로 없는 말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하루 빨리 버리고 학생들과

이 사고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작년과 같이 우리 대학에서 교수의 자질과 연구하지 않는 교수가 문제해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고학력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대학은 심도있는 학문연구를 위한 곳이 아니라 그 저 직업선택과 출세를 위해 준비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대학의 기능이 학문연구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대학인들은 進路가 아닌 進學을 선택해 대학문에 들어선 것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수련과 목적이 때때로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학문연구는 수가 못되더라도 꿋이 되는 가치전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우리학교에서 힘들게 일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잘 활용해 학생·교수·교직원 모두가 대학에서 학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만 한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여러권의 참고도서와 교수들의 연구논문으로 밤새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熙】

濟州人의 자존심 道民日報

濟州道民을 위한 새 新聞이 탄생합니다.

濟州道民日報가 귀하를 창간 주주로 모시고자 합니다.

濟州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道民日報는 진실에 바탕을 두고 참언론 실천과 濟州지역 발전을 위한 건전한 여론을 선도 할 것입니다.

濟州道民日報는 여러분이 키워 나갈 신문입니다

저희들은 신문이 한두 사람의 사유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도민적인 참여에 신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났을 극복하고 濟州道民日報를 창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바탕으로 한 참언론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민주주의를 담보하고,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는 확실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뜻과 계획에 적극 찬동하시고 주주로 직접 참여하실때 濟州道民日報는 굳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濟州道民日報의 주주가 되어 우리 고장에 참언론을 심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주주인 濟州道民日報가 올 상반기안에 창간될수 있기 위해 저희들은 선생님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주식공모 요령

1. 상호: 제주도민일보
2. 앞으로의 회사 자본 예정규모: 45억원(900,000주)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0,000주(1990년2월19일 현재)
4. 1주의 금액: 5,000원
5. 이번(1차)에 공모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 1) 공모주식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300,000주(15억원)
- 2) 공모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5,000원
- 3) 주식청약기간: 1990년 2월26일 - 1990년 3월31일
- 4) 주금납입기일: 1990년 2월26일 - 1990년 3월31일
- 5) 주식의 청약단위: 10주(5만원) 단위로 한다.
- 6) 청약증거금: 1주당5,000원
- 7) 청약증거금의대체: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배정된 주식의 납입금액으로 대체한다.
- 8) 주식청약과 주금납입처: (1) (주)제주도민일보 주식청약창구 (2) 농협중앙회 도내전점소(군지부) 및 단위농협지소 (3) 제주은행 본점과 각 지점
-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제주도민일보 (전화52-9511-3) 주식청약창구로 문의 바랍니다.

주권교부

1. 주권교부 예정일: 1990년 6월30일
2. 주권교부장소: 본사 총무국

●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주식 납입금을 지참하시고 도민일보사, 농협, 제주은행에 가셔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690-0222
제주시 이도2동 1171-2
☎ 52-9511-4
FAX 52-9514

濟州道民日報社

社說

21세기의 제주 우리가 만들자

우리는 지금 인류사상 가장 화려했고 또한 가장 비참했던 20세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변화로 채워질 21세기로 가는 가파른 마루턱에서 있다. 1990년대의 문턱에서 서서 미래학자들은 10년후면 펼쳐질 21세기는 분명히 오늘날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 더욱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띄어 갈 변화의 흐름들이 이미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21세기로 달려가는 변화의 흐름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화와 대중화이다. 국제화의 흐름이란 그동안 이태물로기의 장벽으로 두터워졌던 국경이 없어져서 국가와 국가간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산되어 감을 뜻한다. 이는 나사 죽을 때까지 국경을 넘는 일이 없이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의 삶이 이제 두나라 이상을 넘나드는 것이 일상화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다. 바로 세계가 하나의 촌락 즉 지구촌이 되어 가는 것이 21세기의 모습인 것이다. 대중화의 흐름도 21세기를 특징짓는 거센 요소다. 대중화란 자기운명에 관여되는 결정에는 나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의 확산을 뜻한다. 지난 날과는 달리 대중화시대에는 공동체운명과 관련된 일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대중화는 지역공동체의 관련된 일의 결정과 집행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야만 되게 되었다. 국제화와 대중화 흐름을 생각한다면 21세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는 20세기의 마지막 걸목에서 우리는 21세기를 형성하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포착하여 바른 대응책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정부는 21세기의 제주도의 위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제주도종합개발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미국의 하와이 같은 관광산업중심지로 개발되어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개발을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겐 각종 레저 스포츠 시설이 확충되고 카지노 등 국제 유흥시설과 국제회의장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고 새로운 국제공항도 96년까지는 건설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 및 하와이 발리 등 주요 관광지의 직항로개설과 세계 유명 유람선의 제주도 경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92년을 기점으로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될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 기본방향으로 홍콩형 국제자유지역 모형과 하와이형 국제관광산업중심지 모형을 놓고 검토를 해오다 제주도를 하와이형 관광산업지로 개발시킨다는 방침을 굳히고 이를 기초로 종합

개발안을 구체적으로 확정 시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안대로 제주도가 개발된다면 21세기의 제주도는 지금의 모습에서 달라져 국제휴양 중심지의 관광산업지로서 <동아시아의 하와이>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요충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는 그동안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국제관광지 내지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킨다는 안(案)을 줄곧으로 발표해온 것이다. 그러나 그 때마다 그 안들이 내외환경의 변화에 대한 깊이있는 고려가 결여된데다가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案)자체로 끝나곤 했었다. 지난 5공화국시절 제7기되었다가 백지화 되어버린 중문국제자유지역 개발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6공화국정부에 의해 21세기의 제주도를 <동양의 하와이>로 개발해 나가려는 이 안 역시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정부의 제주도의 국제화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회의가 앞선다 하겠다. 아직 이 종합개발안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상에 보도된 바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이 안은 21세기로 달려가는 국제화의 흐름을 바로 반영하고 있나 하는 점이다. 국제화가 한반도 내지 동아시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은 바로 태평양시대인 것이다. 그렇다던 태평양시대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끌고 나갈 일본, 중국, 소련의 정책이 어떠한지, 그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요충인 제주도가 어떤 위상을 갖게 되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나 하는 점이다. 그러한 검토속에서 정부가 제주도를, 하와이형으로 개발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태평양시대의 의미와 제주도의 위상을 너무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이 태평양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제주도는 국제관광만이 아닌 국제금융, 무역, 통신산업, 첨단정보산업 등이 집중 개발되어 동남아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있는 해운, 항공에 있어 동남아의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보겠다. 두번째는 이 안의 산업과정이 과연 대중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나 하는 점이다. 몇번의 공청회로서 개발의 주체가 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본다면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다 하겠다. 즉, 아직도 많은 도민들은 제주도를 관광만으로 개발시킨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는 예측될 수는 없어도 만들어질 수는 있다. 지금부터라도 21세기의 제주도를 한국의 미래가 잠재하고 있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자. 줄줄은 글들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21세기에 걸맞는 제주도의 위상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가 대학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특자의소리

濟大新聞은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하니 원고지 5매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식비인상과 함께 음식의 질도 개선돼야

최근 소비조합에서 내놓은 구내 식당 식사대금 인상안이 학우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재료비와 인건비상승등을 이유로 현재 구내식당에서는 특식만을 2백원 올려받고 있고, 정식과 국수는 후에 총학생회 주관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20%의 대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비조합측이 내세우는 인상이유만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않아 학우들의 의욕은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특식을 2백원이나 올려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것을 감안할때 학우들이 즐겨먹는 정식과 국수대금이 오를 경우, 얼마만큼의 음식질이 향상될 것인지의 여부가 학우들을 더욱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비조합이 적자운명을 하고 있다면 어느정도의 적자운명을 하고 있는지의 정확한 예산과 타대학의 경우를 예 들어 음식질 상태와 식비가 얼마인지를 비교·검토하여 공개시켜, 본교 구내식당 식사대금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물가상승만을 이유로 무조건 식사대금만을 인상한다면 학우들의 반감만을 살뿐, 여기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식사대금은 언젠가는 올라야 한다. 그러나 가격만 오르면, 음식의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을 꾀하지 못하면 이는 실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학우들은 돈 1·2백원이 더 들어도 음식질이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한다. 그러므로 소비조합측에서는 나머지 식사대금을 인상할 경우, 일차적으로 영양상태와 위생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구내식당은 학우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곳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는 커녕, 오히려 학우들에게 반감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이는 분명 어느쪽이 불합림이 틀림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내식당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 경 회 산업디자인·2

교양과목 선택의 폭 넓혀라
18시간 강의에 수업준비 언제하나

분활살과 함께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내는 무척이나 분주해지고 활기차진것 같다. 강의실을 찾아 바쁜 그 걸음속에서, 강의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우리대학의 어려움에 대해 잠시나마 잊고 싶은 마음이다.

「교양과목」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전공에 관계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교양과목 수가 너무 적기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택하기가 무척이나 곤욕스럽다. 또 강의를 해야할 교수님의 입장에서든 범접 시수인 9시간 보다 훨씬 많게 강의하는 교수님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현재 「문화와 환경」이라는 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경우

그 배인 18시간을 강의하고 있다. 정말 좋은 강의는 교수님들의 충분한 강의준비와 연구활동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대에서는 교수님들의 수업시수를 점차 줄여가고 있고, 또 일부 교수님들에게는 모든 시간을 연구에만 몰두하게 하고 있다. 사실 우리 대학은 타대학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다.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와 보조를 맞추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절대 필요하다. 문화적으로 중압과 떨어져 있다는 취약성이 있는게 거기에서부터 더욱 충실해져야 할 일들이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 진다면 학내의 질적인 향상도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지역적

고립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교당국과 정부는 좀더 신중하게 대학실정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학생자신의 탐구적인 자세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김 승 용 국문교·2

中庸을 지키자

이제 우리는 모두 새학년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학과선택이라든지, 동아리선택, 그와 선택해야할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난 나름대로의 선택이라는 단어에 감초해 두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중용」이라는 보잘것 없이 보일지도 모르는 두자의 말이다. 우리는 흔히 충용을 지키는 자들을 기회주의자라하여 매도해버릴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으로서 모든것을 대치해버릴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있다. 그래서 거의 극단에 가까워져 버린다. 우리는 누구나가 좀더 멋있게 놀며 좀더 멋있게 공부하기를 바랄것이다. 그러나 남보다 멋있게 놀려면 신경을 그쪽으로 많이 쏟아야 한다. 또한 멋있게 공부하려면 역시 그렇다. 양쪽 다 멋있게 할려면 남들보다 두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 어쩌면 두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무진장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사람이 양쪽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선택의 문제는 이처럼 난감하다. 우리는 종종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새학년을 맞는 대학인들이여! 우리!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더 나은 이것과 저것을 동일시하려는 노력

을 보이자. 단, 거기에는 자신의 주체성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 동 실 일문학·2

먼저 모범을 보이자

고3이라는 힘든 판문을 통과하여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보며 그들이 대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그들은 대학을 그저 낭만적이고 자유분방한 곳으로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 사회에 나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준비의 과정으로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활을 경험한 학형들은 그것만으로 대학생활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대학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대학을 「진리탐구를 위한 곳」이라 얘기한다. 참으로 감 뜻깊은 얘기같다. 하지만 그것은 재인식의 단계문제이고 이제까지의 사고의 틀을 깨고 나아가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대학생활 가운데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대리출석을 부탁해 놓고서 캠퍼스 이곳저곳에서 탐내나 피우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이가 허다하고, 말로 하기에 부끄러운 짝꿍이판을 벌이곤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대학 4년을 보낸 후에 사회에 나가 과연 몇몇개의 지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을까.

이제 신입생들은 3, 4월을 기점으로 대학이라는 곳을 다시 생각해보라 할 텐데, 선택된 입장으로 한미디 충고는 못할만큼 이런 추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김 태 우 농경제·2

아라골단신

「학회지 발간

「清流」제 7 호

「清流」제 7 호가 지난달 국민윤리교육학회(회장: 조경애·3)에서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김옥순(4) 학우의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연구」등 4편의 논문과 고성태교수의 중국 방문기 「개혁·개방속의 중국인과 우리동포」가 실려있다.

「白鹿語文」제 7 집

「白鹿語文」제 7 호가 지난달 국어교육학회(회장: 김순희·3)에서 발간됐다.

이번호에는 조숙희(4) 학우의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韓龍奎의 〈恨의 沈黙〉序詩 分析」와 6편의 논문과 국어교육학회에서 실시한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현지화술조사보고」가 실려 있다.

「濟大社會學」제 7 집

사회학과 학생회(회장: 김경숙·3)에서는 지난 2월자로 「濟大社會學」제 7 집을 발간했다.

이번 제 7 집에는 고민석(4년) 학우의 「제주도의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를 비롯, 오태경(4년)

학우의 논문 「제주지역 노동시장 하의 이농의 특성과 공식」의 4편의 학생 논문이 실려 있다.

「牧養」제 6 호

「牧養」제 6 호가 지난 2월 축산학회(회장: 김성진·3)에서 발간됐다.

이번 제 6 호에는 李賢鍾교수의 논문 「良質의 牛乳生産을 위한 搾乳管理 改善方案」을 비롯, 김한중(3) 학우의 연구보고서 「제주사나 酪農牧場의 방목기 동안 草地實態調査」의 논문 2편이 실려있다.

「...社會科教育」제 7 집

「濟大社會科教育」제 7 집이 지난달 사회교육학회(회장: 송정현·3)에서 발간됐다.

이번 제 7 집에는 양재식(4) 학우의 「民族統一을 위한 北方政策의 課題」를 비롯, 4편의 논문과 사회교육학회에서 북제주군 구좌읍 광대리의 행원리·하도리·월정리 해녀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海女調査研究」가 실려있다.

「학과동정

▲ 영어영문학과
△신입생환영회-16일
△M·T-30~31일

▲ 독어독문학과
△신입생환영회-15일
△M·T-30~31일

▲ 일어일문학과
△신입생환영회-16일

▲ 사학과
△신입생환영회-16일
△M·T-30~31일

▲ 사회학과
△신입생환영회-16일
△M·T-4월 13~14일
△학술세미나 「대학과 현실」-28일

▲ 음악학과
△정기총회-15일

▲ 농업경제학과
△신입생환영회-21일

▲ 수의학과
△신입생환영회 체육대회-17일

▲ 화학과
△정기총회-16일

▲ 통신공학과
△신입생환영회-16일

「게시판

○「우리네」 다섯번째 정기공연
△시간: 15일, 16일 (오후 3시, 5시)

△장소: 법정대(2동) 중강당
△공연작품: 「여미리의 주막」
△연출: 김승을
△기획: 진영재, 진선희

○탈춤 강습회
△기간: 3월 19일~3월 24일(오후 5시~7시 30분)

△내용: 탈춤강습(봉산기본), 문화세미나, 민요보급, 공동체놀이

△예비비조집일: 3월 16일 오후 5시 30분

○제2회 민중가요 경연대회
△시상: 3월 16일 3시

△장소: 민주광장 (우천시 2동 중강당)
△경선방법: 각 단체에서 예선 △본선: 각 단체에서 1팀 출전 △참가곡: 삶의 노래, 해방의 염원을 담은것
△형식: 서정가, 투쟁가, 민요, 개사곡
△시상: 대상, 2등, 3등, 폭로상, 인기상

「교수동정

○ 高泰洪 부교수 (영어교육과): 제2외국어 교육지도법 연구를 위해 지난달 10일 부터 '91년 2월 14일까지 유네스코 후원 폴란드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Poznan대학에서 수학.

○ 卜鍾民 부교수 (영어교육과): 3월 1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서울에 대학교에서 근무.

○ 梁榮桂 전임강사 (국문윤리교육과): 3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동아리대학에서 근무.

○ 安熙範 조교수 (국문윤리교육과): 3월 1일자로 국문윤리교육과장에 임명.

○ 張弘銘 조교수, 金品順 조교수, 李善文 조교수 (음악교육과): 3월 1일자로 사범대 음악교육과에서 인문대학 음악학과로 소속 변경.

○ 夫賢一 부교수, 許明順 부교수 (미술교육과): 3월 1일자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인문대학 미술학과로 소속 변경.

○ 高昌錫 부교수 (사학과): 3월 1일자로 인문대학 교무과장에 임명.

○ 金鍾太 부교수 (독어독문학과): 3월 1일자로 인문대학 학생과장에 임명.

○ 黃希英 조교수 (음악학과): 3월 1일자로 음악학과장에 임명.

○ 康熙熙 부교수 (회계학과): 3월 2일자로 경상대학교 교무과장에 임명.

○ 高契杓 부교수 (무역학과): 3월 2일자로 경상대학교 교무과장에 임명.

○ 李相泰 조교수 (회계학과): 3월 2일자로 아간강좌부 교학과장에 임명.

○ 黃正泰 조교수 (무역학과): 3월 2일자로 무역학과장에 임명.

○ 高載乾 부교수 (경영학과): 3월 1일자로 경영대학원 교학과장에 임명.

○ 高成孝 부교수 (회계학과): 3월 1일자로 회계학과장에 임명.

○ 鄭相結 교수 (중식학과): 3월 1일자로 해양과학대학 교무과장에 임명.

○ 玄南奎 조교수 (물리학과): 3월 1일자로 물리학과장에 임명.

○ 李和子 조교수 (생물학과): 3월 1일자로 생물학과장에 임명.

○ 林載允 전임강사 (통신공학과): 3월 1일자로 통신공학과장에 임명.

○ 孫永秀 전임강사 (산업디자인학과): 3월 1일자로 산업디자인학과장에 임명.

○ 吳性實 조교수 (전기공학과): 3월 1일자로 전기공학과장에 임명.

현장에서

자상한(?)선배의 충고

개강을 맞아 교정에는 게시판마다 불은 등이리 소개지와 함께 부신함과 활활함이 함께 곁들여 있다. 이는 비단 개강을 했다는데서 연유한 것보다는 새 식구를 맞이하는데서 연유한 즐거운 충적인 듯 싶다.

새로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이번엔 새로 들어온 1학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입학전 예비대학에서 대학사회에 대한 예비지식을 미리 습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배워준것은 대학문화와 대학사회에 대한 검토도 없이만 대학생활을 하기 위한 행성상의 절차들을 간단히 해라도 보여 주지는 못했다.

그런 관계로 신입생들은 수강신청서 같은 학과 선배의 조언을 듣게 마련이다. 대학에 들어와 처

음 듣는 과목명에 낯설기만 한 신입생들에게 자신이 받아본 과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배들의 모습은 다정다감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때 선배들은 학생들은 어떤 과목이 진정 학문탐구를 위한 과목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잘 주는 교수과목과 출석에 덜 신경써도 되는 교수과목을 가르쳐 주면서 선배로서 후배를 꽤나 생각해 주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신입생들에게 학점을 중시하는 수강신청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 그지없다.

선배가 자신이 받아 본 과목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해주는 자상함을 보여주는 점은 가상하지만, 학과목의 내용보다는 학점위주의 수강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과연 선배된 자로서 후배를 생각하는 배려라 할 수 있을까?

【甲】

4막의 연극, 라스트썸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대학 4년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수염 가득한 신입생의 눈망울은 누구나
포부로 반짝입니다.
하지만 막이 가고 해가 바뀌면 캠퍼스 무대에 선
대학인의 모습은 차츰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학생은 1학년엔 獅子이지만 2학년엔 思子가 되고
3학년엔 斜子로 그리고 4학년이면 아예 死子가 된다고.

아예면 끝내는 관객으로, 대학생활의 아웃사이더로
소극적인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가득한 꿈으로 대학의 빛깔을 여는 여러분.
부디 하늘을 찌를듯한 그 포부 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더 크게 키워 나가십시오.
들립니까? 4막 연극의 막이 내릴 때 들려올
관객들의 박수소리가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중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차는 많지만 경적소린 듣지 못해”

人民모두 더 나은 사회주의 건설위해 노력

中國紀行

동양문명의 발상지, 수만년의 역사를 가슴에 품은 채 잠들어 있었고, 56개 민족이 독특한 문화를 고이 간직해 채 부지런히 살고 있는 광활한 미지의 세계 중국. 이 거대한 대륙을 단장님(梁奇千 학생 처장)을 위시한 31명(학생 총25명)의 연수생은 홍콩과 대만을 포함해 총 9박10일 동안 돌아 보았다.

마르크스가 사소한 사회주의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 사회주의는 바로 현실을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짚어 보여 주고 있었다.

중국 인민들은 한결같이 현 정책의 고수를 바꿨고, 우리가 만나 본 조선족을 조차도(그들의 나라는 이미 중국이다) 현 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어딘가 낯설고 밝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늘 산뜻하고 맑게 갠 푸른하늘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식사는 계속 향료와 기름으로 이뤄진 중국식으로 먹었는데도 통 입에 맞지 않았고(그래도 필자는 향

상 배불리 먹었다), 물 대신 차와 맥주를 마셨다. 중국에는 짜장면이라는 것이 없었고, 중국인의 식사 시간은 한시간 이상이나 걸린다.

점포수가 적어 각종 음료를 파는 노점상이 많았고, 길가에 자연스레 형성된 음식 시장이 너무도 인상깊어 밤에 음식을 먹으며 갔는데 역겨운 향료 냄새로 먹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아주 만족스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아주머니들과 손님들의 호기심어린 눈길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씩씩 미소 지으며 다 먹었다. 그래도 양고기를 넣은 호떡만은 먹을 만 했다. 어떤 곳에서는 화장실이 너무 개방(?)되어 있어, 즉 남자화장실은 옆에 칸막이가 없었고, 여자측은 앞에 문이 없어 모두를 당황케 했다.

한편 중국에서 8일 동안 지내며 자동차 경적 소리를 한번도 듣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가 바뀐 뒤에도 한참 뒤에야 차가 출발하는게 우리의 상황이 달랐다. 자전거의 대국적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는 수많은 인민의 자가용(자전거)이 달리고 있었다. 번글번글한 전차, 군복을 입은 사람, 각자의 자전거 위에서 사람스레 두손을 포크 집은 채 달리

는 남년의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으며, 그들은 절대 빨리 달리는 법이 없었고, 만사에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昆明, 西安, 北京 등지에서 수없이 만나고 호텔까지 초청해 대화와 동포애를 나누는 조선족들에게서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정리해 보면, 1966년부터 10년간 실시된 문화혁명 중 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모두에게 죄질과 손실을 안겨 주었고, 유소기, 등소평 등 많은 이가 비판을 당했으며, 임포, 4인방 등이 문화혁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바람에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고 한다.

1976년 덩의 운전 중도 노선을 대폭해오던 주은래가 사망하자, 인민들은 천인공노당 등지에서 항의를 했고 이에 기초해 덩 중장은 강형 등 4인방의 반혁명 음모를 분쇄함으로 문화혁명은 막을 내렸다고 한다.

한편, 지금 이미 10년을 경과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개혁·개방노선은 그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10년간 이론 업적은 지난날 반세기에 이룩한 것을 초과했으며 중국인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반대급부적으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발생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언론의 부자유, 경제개혁에 비해 늦게 발전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불만이 천만년 사태로 터져 나오게 되었다.

서안교통대학교 특강에서도 실질적인 인민들은 이같은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현 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한 발전을 구족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비국적인 유혈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들은 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인상을 천안문 광장에서의 밝은 인민들의 모습 속에서도 얻을 수 있었으며, 만리장성을 힘차게 오르는 그들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에게는 이런 연수가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발전하려는 무서운 집념에 입도된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중의 하나가 그들의 근면, 성실한 생활 태도이며, 여유라는 생각을 기치로 편을 놓는다.

홍승택 동학과 4

(사진: 필자뒤로 만리장성을 오르내리는 관광객의 행렬이 보인다.)

無論有說

신학기에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자



金 貴 植

정치·사회적 격변기였던 80년대 후반을 일본에서 보내고 돌아온 후부터 지금까지의 1년간은, 귀국하자마자 보았던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무능시비를 비롯하여 총장선거, 학생회장선거 등등 혼란의 연속이었다. 유학시 보았던 일본대학들의 모습 즉, 매일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여 연구실엔 항상 전등이 켜져 있었던, 선거등의 형사는 일체 모르게 지나갔던, 학생들은 열심히 연구하는 교수와 선생들을 존경하는, 타인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듣기 힘들었던 학생들의 근면 성실한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지금의 우리대학 모습을 변화를 요구하는, 스스로의 변화를 앞세우는 과도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변화의 모습은 권위주의가 탈피되고 있고, 객관성·타당성의 요구가 수용되어 가고 있으며, 학문연구가 우선으로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상호 불신이 요구사항에 충족되어 많이 남아 있는것 같다. 서로간의 요구와 주장을 한발씩씩 양보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 보다 어떤 것이 가장 발전적인 모습이 될것인가를 숙고하며 기다리자.

대학은 우리사회의 이상이고 희망이다. 우리나라 젊은 평민에게, 교육열 성취욕이 세계에서 으뜸인 이곳에서 교육이, 대학이 당연히 이상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대학은 이 이상과 희망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실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습이 사회전분야에 확산되어야 한다. 지난 일년간의 노력은 대학이 사회혼란상의 재판이며, 어느쪽도 똑같은 혼란의 모습이었다.

몇년전부터 일본의 매스컴은 일본의 국제화를 부쩍 이야기해 왔다. 경제력의 신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나서기 위해 일본인들에게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데, 그것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더 장점이 많은, 친절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객관성이 있는 등등의 국제사회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총체적인 면에서의 요구인것 같다. 우리도 국제화에 다가가야 한다.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 사회와 개인을 보았을 때는 우리들 서로에게도 변화를 요구해야 할 점들이 많이 보인다.

유학을 가서 1년후 책상과 가구 몇점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가구를 찾았는데 마침 산본이라는 상점이 있었다. 골목머리에 전형적인 일본인 값싼 주인이 내가 한국인인것을 알고나서, 자기도 한국인이란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구입 가구를 운반해 주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진하게 머리 속에 남아있다. 자식들이 일본교육을 받고 있고, 또 자신들은 일본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일본에 귀화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받아왔던 멸시와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국력차에 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국이 일본에 버금가는 국력이되면 몇몇이 귀화하고 싶다고 머뭇거리며는 우리말로 이야기했을때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해야할 또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나라밖에서 보여지는 우리나라의 모습 중 자랑스러웠던 기억은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에서 신나게 팔릴때였다. 그때는 만나는 일본인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보여지는 우리나라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이제 3월 신학기가 되었다. 신학기에 계획되었고 충실한 연수에 의해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challenger 정신으로, 누구나 각오를 새롭게 하여 근면성실로써 최선을 다하여, 여러가지 이유에서 2000년대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자. 대학이 진리탐구의 요람이란 많은 불변의 진리일진대, 대학사람들이 학문연구에 매진할 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교권이 확립된다고 본다.

기관공학과 副教授

길을 걸으며

강영미 국문학과 2

내일은
호미를 잡지마라
외지인의 투기 바람에 공중으로 뜬
휴먼서 백점의 책은 세상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니요.

눈물마저 말라버린 보릿고개
들쭉 산들 꺾으며 일궈온 자갈밭 목숨
잘난 놈들의 저주가 정작에 밀려
털썩털썩 배를 꺾으면서도 시퍼런
하늘에 명줄길고 한숨 흠 땀으로써 걸어온
당신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발걸음엔
바위틈마다 배어나 처녀 애타는 미소 짓는 진달래 고운 가슴.
그러면서도
밟힐수록 모질게 때마침을 추스리던 청보리밭
북풍에 쓰러져 갈갈이 찢기다지도 날서게 뻗죽이는
역새들이 조상님들의 뱃가루
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울지마세요, 어머니, 주저앉다니요.
살가죽이 짙어져 패조차 뭉개져도
뱃조각으로도 가야 할 길인걸요.
몇 십년 아니 몇 천년부터 배 속에서 끓어 온
피고름, 크림 크림 끓는 가래를 바박 끓여
그들의 물렁개미들에게 던져주고 가자구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총킬보다 더 무서운 우리들의 흉음을 움켜쥐고
주먹땀의 기쁨을 가로채는 놈 같잖은
놈들을 마사기면서 한발 한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자구요. 쓰러진 때마침
동강난 땀맥을 한 자리에 불려모아
큰 함성이 되어
죽어도 죽지 않을 노을 타는 하늘이 되어
어머니,
4월 할아버지의 피땀은 유서로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구요.

개신간

「누렁송아지」

이영미 역음

'80년대 들어 온몸으로 노래를 부르며
전국의 노동현장과 대학가를 누벼온 노래
꾼 정태준의 노래와 시 등을 모아놓은
'정태준 노래·시 전집'.
이 책은 그의 초기 작품시기인 '75년
이전의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작
품 80여편을 총망라해 실고 있다.
(한울·3천3백원)

「역사철학」

그레이스 E. 케언스 저

이 책은 역사를 순환적인 형태로 파악
한 동서양의 사상들을 집대성한 역사철학
의 고전으로 동서양의 사상 가운데 역사
를 순환적인 형태로 파악하려는 접근 방
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대원사·4천5백원)

「濟州人의 삶」

제주역사연구회

지난해 초 창립된 제주역사연구회(회장:
오성진)의 현장답사보고서와 회원논문들
을 모아 엮은 제주항토목 제1집.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본도의 항
토사를 시대별로 강의한 「제주항토사 지

상강조」 및 「제주도 민요연구의 기초적
접근」, 「제주 마을사 조사보고서」 4·3
증언, 역사현장순례 등이 실림.
(비매품)



○「조남정신」을 기르자.
제주인의 「조남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
는데.

대낮에, 그것도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형
광들이 환하게 켜져 있어도 누구하나 끄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문이 잠긴 교수연구
실에서도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전기세를 학교에서 낸다지만 그돈
은 사실 우리들의 부모님이 내신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이요.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사소한 것에서부터 조남정신을 길러
절약하는 생활을 하도록 어필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디에.
강의를 하려면 교수와 학생과 책이 삼위
일체가 되어 하는데.

신학기 초라 그런지 몰라도 어떤 교수님
들은 학생들을 무시, 아무런 통보없이 한번
도 강의실에 얼굴을 내밀지 않아.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다해도 강의를 못
하시면 「못하겠다」는 연락을 해야 할 줄로

이외로, 강의하기가 싫어서 안하시는 거면
일찍감지 교수직을 내놓으시던지요.

○매를 주어 표창함(?)
아무리 돈이 궁하기로서니.

문교부의 수업료·학생회비 분리 납부에
따라 몇몇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안내도 된
다는 점을 이용, 학생운동 저지라는 문교부
의 시커먼 속셈에 빠져드는게 기어.

돈 몇 천원을 아껴, 학생회비 납부를 거
부하는 학생들이여, 못 된 송아지 엉덩이에
뽀나더냐며 매를 주어 표창해 드리오리까?

교수님은 어디에

○P·R시대(?)
알릴 곳은 마땅히 알려야.

법정대 서쪽 화장실에 남·여 구분 표지판
이 깨져 어디가 어디인지 낱설기만 한 신입생
들에게 큰 혼란을 줘, 위쪽에 걸어진 그 표
지판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할
편.

물론 일부학생이지만, 장난삼아 학교 시
설물들을 파손하는 행위는 고쳐 마땅한 줄
이외요.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교수연구실 문 앞에 교수의 소재를 알리

는 표지판이 응무있는 사람들에게겐 편하게
느껴지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재실」이란 표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실엔 「강의」란 표시
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심지어는 표지판이
파손된 경우도 있어.

이것도 비잔된 들어가며 연구실문에 소재
파악 표시판을 한 이유를 모르시는지, 아무
리 바쁜 생활이지만 타인을 위해 사소한 일
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오.

○행정상의 오류
수강신청변경기간 기다리다 아라학우들
목이 빠질뻔 했다는데.

분명 2일부터 수강신청변경기간으로 학
사일정에 명시돼 있었는데 변경통지는 5일
에야 나와 학생들이 강의도 못보고 안절부
절.

행정관님들! 학사일정은 품으로 있는 것
도 아닌데 일정에 맞춰 준비를 좀더 철저하
게 해서 하지 않겠소이까.

○모두 다 사랑하리.
「고대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속담이
변태돼 신입생초청잔치에 나무등 터진다고.

꽃동아리에서 흥보작전의 일환으로 나무
마다 신입생초청잔치를 알리는 대자보를 큰
못(?)으로 박아놔 죄없는 나무란 괴로움 보
고 있다고.

큰 공부

고요한 곳에 천지가 크고
한가한 가운데 일월이 길다.
만약에 제 분수에 편안할 양이면
도대체 유별난 생각보다 나은 법.

책상에 의지한 공부가 큰 것이지
창을 휘두르는 사업이야 낮은 거라네
봄가을에 흥을 타고 노닐어야 하기에
나갈 적엔 작은 수레와 아이를 쓰노라.

세상에는 대단한 일이 없지만
천하에는 영웅의 재주가 있다네.
다만 사람 얻기 어려울까 걱정이지
寧憂道未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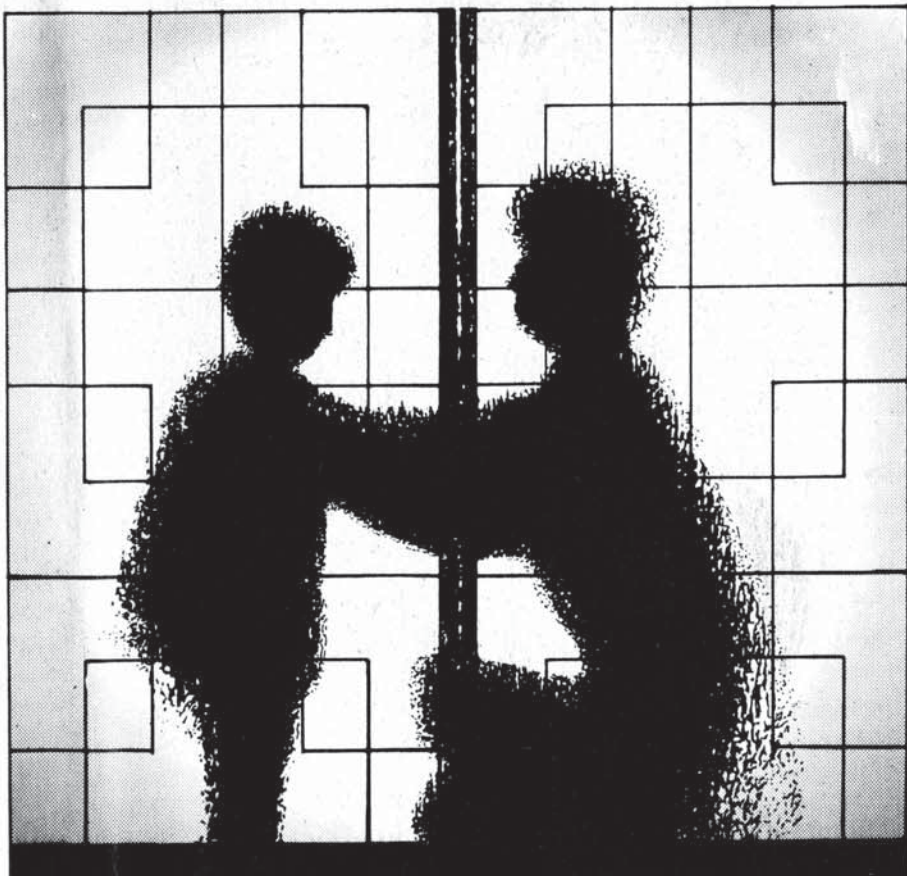
靜處乾坤大
閒中日月長
若能安得分
都勝別思量

隱几工夫大
揮戈事業卑
春秋賴乘興
出用小車兒

世間無大事
天下有雄才
惟恐人難得
寧憂道未恢

— 이익의 《성호사설》 중에서 —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족